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프로젝트 - 원도심 공동체 복원, 학교에서부터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옛 도심, 작은 학교의 위기

새해 새 학기를 앞두고면 항상 입학생 수가 걱정이다. 농어촌 작은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육도시 전주, 그것도 도시 한복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초등학교들의 현실이다.

오랫동안 거대학교 문제로 ‘살빼기’를 고심해야 했던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갈수록 쇠락했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이제는 학교 존폐 문제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전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대변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추세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사해서 해마다 발표하는 교육 분야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조사 결과 원도심 학교의 표본이 된 전주초등학교와 완산, 풍남, 중앙, 금암, 동초등학교 등 6개 학교의 2015학년도 학생 수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전 화 063-281-2974

팩 스 063-711-1237

이메일 ongoul21@hanmail.net



는 총 1,187명으로 집계됐다. 25년 전인 1990년 이들 6개 학교의 학생 수(1만 5,647명)와 비교하면 7.6%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하면 전교생 100명이던 학교의 학생 수가 25년 만에 8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대부분의 도시지역 사례처럼 외곽으로 주거지역이 확산되면서 원도심 인구유출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 전주 원도심 교육공동체 출범

원도심 초등학교의 침체는 지역 교육여건과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인구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은 다시 학교의 침체를 부추긴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 학교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자는 취지에서 2012년 5월 30일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인 '전주 원도심 교육 공동체'가 꾸려졌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한 지표사업의 결과물을 단지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를 바꾸자는 능동



전주 원도심 교육공동체 출범식



원도심 어린이 멘토교실



전주 중앙초, 덩더쿵 한옥마을 축제

적 실천 활동이다. 원도심 교육 공동체에는 자치단체와 교육계, 지역사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원도심 교육 공동체는 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및 생태환경 교육에서 찾았다. 학교를 지역사회 문화예술·생태환경 교육의 거점이자 주민 소통 공간으로 변화시키자는 취지다.

## 사업내용

전주 원도심 교육공동체는 공식 출범에 앞서 우선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효율적인 활동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원도심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850진)를 진행했고 5차례에 걸친 포럼도 열었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원도심 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한 연구보고서도 냈다.

### 지역 자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전주 원도심 지역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어느 곳보다 탄탄한 전통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교육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및 생태환경 교육에 역량을 모았다.

우선 시범학교(전주 중앙초, 완산초, 전주초)를 중심으로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전주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원도심 학교 공동 캠프와 공동

현장체험 차량 지원도 진행했다. 농어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도심 작은 학교에 적용한 사례다.

학교와 연계를 통해 운영한 '원도심 어린이 멘토교실'도 관심을 모았다.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평소 만나고 싶어하는 멘토를 학교에 초청, 대화의 시간을 갖는 형식이다. 프로축구 이동국 선수와 안철수 국회의원, 딱따구리 박사로 이름난 김성호 서남대 교수가 학교에 찾아와 아이들을 만났다. 또 전주영상위원회에 직접 가서 전주국제영화제 정진욱 사무국장을 만났다.

생태환경수업에는 지역 전문가들이 힘을 보탰다. 완산초등학교의 완산칠봉 종주 프로그램, 전주초등학교의 전주천 생태수업 등이다.

지역신문 기자의 지도로 만든 원도심 어린이 신문('도란도란')에는 각 학교 및 지역사회 소식과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학교 주변 역사문화 유산 등을 담았다.

지역사회 현장체험 교재('마을이 배움터다')도 발간했다. 지역 활동가와 교사, 장학사 등이 교재개발위원으로 참여해 '산 이야기, 강 이야기'와 '옛동네 문화이야기' 등 2권을 펴내 각 학교에 배포했다.

### 지역사회 연계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원도심 학교 활성화 사업은 결국 지역공동체 복원과 맞닿아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이자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학교 마을 축제'를 기획했다. 학생들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잔치다.

전주 중앙초등학교는 2015년 10월 '덩더쿵 한옥마을 축제'를 열었다. 2012년 시작돼 네 번째 행사다. 학생들의 학예 발표회와 학부모 발표회, 나눔장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해외 교류



전주 완산초, 완산골 뽕실남실 축제



전주천 생태 수업

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지역 상인들은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응원했다.

특히 이 학교의 한옥마을 축제는 지난 2014년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울타리를 사용하는 전주 완산초등학교와 곤지중학교는 ‘완산골 몽실넉실 축제’를 공동으로 연다. 2015년 10월 두 번째 행사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창회가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곤지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완산골 나도선생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교가 있는 완산동을 알아보고 지역 어르신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영상촬영도 하면서 완산동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등하교에 불편할까봐 불법주차 단속도 스스로 하고 있다.

원도심 학교의 교사들도 해마다 ‘교사 한마당’ 행사를 통해 소통한다.



원도심 어린이신문 '도란도란'

원도심 교육공동체 소속 ‘불량 엄마, 수다 아빠’ 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학부모 강좌를 마련한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그리고 학부모강좌를 통해서 인식전환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놀 공간마련과 바깥놀이의 필요성을 느끼고 놀이문화 활동도 하고 있다.

학부모 강좌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생태·문화 분야 학부모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져 전주중앙초등학교 무학년제 동아리활동 ‘경기전 나무지도 그리기’도 진행했다.

### 학교 단위 교육공동체 운영

원도심 교육공동체의 지원으로 각 학교 단위의 교육공동체가 꾸려졌다. 단위 학교 차원의 더욱 밀착된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다.

전주 중앙초등학교의 중앙교육공동체, 전주 완산초와 곤지중의 완산골교육공동체가 운영되고 있고, 전주동초등학교와 신일중학교는 노송골교육공동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노송골교육공동체는 노송동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공동체에는 교사와 학부모, 시의원, 주민, 동문, NGO활동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산

처음 초등학교 3개교에서 시작했지만 한 울타리안에 있는 완산초와 곤지중, 전주동초와 신일중이 함께 함으로써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로 이어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함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도심 작은 학교 살리기의 전국적 모델로

2012년부터 본격화된 전주 원도심 교육공동체 활동은 우선 도심 작은 학교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교육청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연구기관, 사회문화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공동체의 정책 제안은 전주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반영됐다.

또 전북교육청에서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원도심학교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했고, 전주와 익산·군산 등 3개 지역 47개 학교를 원도심 학교로 지정해, 학급 당 학생 수 책정 등에서 배려했다. 이들 학교에는 예산 지원도 따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지난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2015년 5월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속가능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의 학생 수 감소 폭도 완화됐다.

이 같은 성과는 인천과 광주·정읍 등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도심 작은 학교 살리기의 전국적 모델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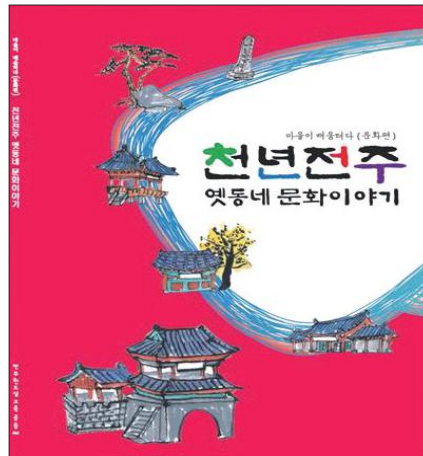
### 지역공동체 복원 운동으로 확산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복원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마을복지 및 공동체 복원 정책과 맞물린다.

원도심 학교를 매개로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성과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은 2016년 7월 ‘전주교육 발전방향 워크숍’을 열었다. 전주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규모 워크숍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 원도심 교육공동체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전주다움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사회 현장체험 교재